

보도자료 - CMG 제약

홍보본부 홍보2팀 |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5

작성일 : 2019년 7월 4일

CMG 제약, 대만 제약사에 149억 규모 의료기기 수출

- 필터, 지혈제, 유착방지제 등 총 4품목...향후 수출품목 확대 예정

CMG 제약(대표이사 이주형)은 지난 3 일 대만 제약회사 Harvest Biotech 와 의료기기 4 품목에 대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.

수출품목은 필터 2 종, 지혈제 1 종, 유착방지제 1 종이며, 계약금액은 5 년간 총 149 억원으로 2018 년도 전체 매출액의 30%에 해당한다.

Harvest Biotech 는 1986 년에 설립된 연매출 1200 억원 규모의 대만 제약회사로, 의료기기 부문에서 현재 박스터, GE, 메드트로닉 등 글로벌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.

CMG 제약 이주형 대표는 "국내 출시 예정인 필터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그 우수성을 먼저 인정 받았다. 향후 Harvest Biotech 와 수출품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" 이라며 "중화권을 비롯해 다양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"고 말했다.

한편, CMG 제약은 최근 3 년간 연평균 20%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제약회사로, 총 매출의 약 10%를 R&D 에 투자하며 제네릭, 개량신약, 항암신약 등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다.